1차산업의 양돈시대는 끝났다

중소가축개량부장
이 원

주 : 본 글은 일본축산의 연구 제47권 제5호(1993년) 이달의 화제에 기고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금후 우리나라 양돈산업 발전과 변화에 참고가 되리라 예측되어 본 글을 게재하는 바이다.

(재)신농정연구소(松浦龍雄 理事長)가 최근 돈육의 선물거래(장래 일정한 시기에 주고 받을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상품시장에 있어서 돈육의 선물거래에 관하여 이해를 구하고 있다. 돈육의 선물거래는 시세가 적절하다면, 예를들어 돈가의 변동에 있어서도 생산자와 수요자의 양자간에 유리한 수급가격이 보증되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의 해설을 하고 있다.

금후 일본에서 식육시장의 자유화가 확대 진행되면 당연히 이 선물거래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일본의 돈육유통량은 현물시장이고 식육도매시장(도축장 병설)이 17.5%, 식육센터 42.5% 기타 도축장이 40.0%로 시장외 유통이 더 많다.

자유시장 경제의 미국에서는 개척시대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선물거래가 각지에서 널리 실시되어 왔고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돈육 선물거래가 장래에 잘 전개될 것인가? 그렇다면 일본의 양돈은 미국과 다른 형태의 산업형태로 발전할 것인가?

상품시장에서 상장되어진 상품(Commodity)이 많은 것은 1차산업의 1차산품(Primary Product)으로 곡류, 두류, 가축, 목재, 고무, 원유, 광석등의 원재료와 그 1차가공품(축산물이면 가축의 지육이나 부분육류)과 같은 저가격 산품이다.

미국에서는 소나 돼지등의 생축은 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지는 반면 「상품시장」에서는 가축의 지육류, 특히 돼지지육, 저장돈육(냉동, 염장돈육)이나 부산물이외에 가축등도 상장되어 선물거래 되고 있다.

또한 이밖에 전 미국 각지에서 농가와 가축중매업자들과의 사이에서 시장외의 선물거래, 예를들어 계약사육(Coustom feeding)등의 투기적인 가축사육의 계약생산이 옛날부터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 가축사양권(소유권)도 상품으로 상장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축산관계 상사도 근년에는 현지 육우계약사육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양돈의 잠재력은 무엇이라 해도 중서부 곡창지대(Corn Belt)의 옥수수생산을 중심으로 일반농가에 의한 돼지생산이다.

미국에서의 곡물가격은 시카고 곡물시장을

기준으로 자유시장에서 형성되며, 세계 곡물 수급사정에 의해서 그 가격이 일상적으로 변동되므로 농가는 봄에 씨를 파종한 옥수수가 가을 수확기에 어느정도의 가격이 될까를 예상할 수 없다.

만약 가을에 상장가격이 싸게되면, 농가수입은 격감된다. 이 곡물상장의 위험을 분산할 목적으로 농가는 옛날부터 돼지를 사육하고 자가산 옥수수의 일부를 돈육의 형태로 바꿔 부가가치를 높여왔다.

이 돈육을 적기에 출하시켜 농업수입의 안정을 도모하여 왔다. 곡창지대 부근의 농가로부터 사료용으로 옥수수를 대량 구입하여 투기적으로 돼지 사육두수를 증가시킨 농가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 돼지는 곡물과 동렬의 전형적인 1차산품 이었고 이 돼지가 중매인이나 가축상을 통해 각주의 가축시장으로 출하되어 유통되었으며 이중 일부 생돈과 돈육류가 주로 투기적인 것을 포함하여 시카고나 쎈트로이스등 각지역의 상품시장에 상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거래량에서 보면 상품시장의 돈육이 돈가의 가격지도자(어느 산업에서 가격인상이나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에 의해서 가격이 좌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돈가는 각지의 가축시장이나 식육시장(거의가 식육회사의 자영시장)이 발표한 매일의 거래가격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농가에 편리한 공설(共設)의 가축시장이 적고 또한 일본의 식육공사와 같은 지육시장(도축장병설)도 적으므로 농가는 원산지의 식육회사(자영의 도축장, 해체, 처리, 가공장을 갖는 식육기업) 또는 가축상에게 육돈을 출하하게 된다.

농가가 출하한 생돈이 식육회사의 비육농장이나 가축시장의 계류장에 수용되며 그곳에서 바이어(식육회사, 중매인, 가축상등)가 출하돈을 1군(群) 수십두에서 수백두 단위로 외모를 평가하여 한번에 어느정도 가격을 정하여 매수하는 시장성격이 강하고「상대의 생체거래」가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돼지가 곡류와 같은 1차산품이고 1차산품은 원칙적으로 양(量)으로 거래 되므로 일본과 같은 돼지사육은 1두당 개별 평가하여 입찰한다고 하는 얄팍한「지육거래」에 의한 출하돈의 가격형성은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근년에는 선물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는 양돈농가가 많게 되였고 농가자신이 적극적으로 선물(先物)을 즐기는 경향이 눈에 띄게 보여져왔다.

이 경향은 미국양돈의 산업적 근대화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반대로 일본의 양돈을 보면 옛날에 비교하여 최근에는 상당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전전(戰前)이나 전후의 후진적이고 무질서한 양돈산업 시대에서도 흔히「피크싸이클」이라 불리워지는 돈가의 3~4년 주기가 있으며 이 주기를 거역하고 돼지의 사양두수를 증가시킨 투기적인 양돈가는 돈가의 하락으로 자돈대와 사료대도 지불하지 못하여 자돈을 강에 버리고 야밤도주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돈가의 하락으로 도산하고 야밤도주하는 사람은 거의없다. 양돈폐업이 많은 것은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의 부재 및 가축공해가 주 원인이 되고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옛날과 비교할때 근년에는 돈가진폭의 고하가 적고 돈가의 주기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인「돈육가격안정제도」의 영향이며 돈육수입이 관세화(자유화)되어 돈육수입이 원활히 평준화 되였기 때문이다.

옛날과 같은 돈육수급의 번잡한 과부족은 없어지게 되었고 또한 전국적으로 다수의 부업적 군소농가가 쇠퇴되어 소수정예의 전업적 경영으로 생산의 대세가 이동되어 왔다. 더욱이 일본의 양돈업이 지금까지 1차산업적 체질로 부터 점차적으로 2차, 3차산업과의 연결이 강한 경영체질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 등이 돈가안정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돼지를 번식하여 자돈을 생산하고 이것을 사육하여 생체중을 107㎏으로 만들어 이 비육돈을 식육시장(도축장)에 출하하기까지 전형적인 1차산업의 양돈업이 었다. 그러나 이 출하된 생돈은 단순한 1차산품이였고 살아있는 동물은 그 상태에서는 경제가치나 상품가치에서도 낮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보면 방해의 존재 일 뿐이다. 양돈농가의 이러한 1차산품은 가축(식육)시장에 출하하여도 생산자는 원칙적으로 항상 약한 입장에 서게 되므로 미국의 양돈농가와 같이 바이어들이 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값을 매우 낮추어 싸게 사게 된다.

그러나 이 생돈(1차산품)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화하고 또한 처리 가공하여, 햄, 베이콘, 쏘세지류로 제품화하여 이러한 것을 출하(도매)하는 것이 2차산업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육이나 돈육가공류를 시각적으로 멋있게 점포 맨 앞줄에 정렬하여 소비자에게 팔고, 조리하여 식당이나 레스토랑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3차산업이다.

최근 일본 양돈업의 대다수가 여러형태로 2차, 3차산업과 결부한 경영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1차산업적인 양돈업에서는 영업상의 위험만 많고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돼지가격이 높은 계절에 편승하여 돈사를 신축하는 등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1차산업적 양돈에서는 앞으로 살아 남기가 어렵다고 생산자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1차산업적인 양돈업에서 탈피하여 햄, 베이콘, 쏘세지류를 제조하고 육제품이나 정육을 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 이외에 레스토랑을 시설하여 돈육요리를 써비스하여 수입을 높여 성공한 예가 일본 전역에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는 (株)사이다마 종축목장)

이러한 경영에서는 자가농장에서 생산한 돈육(1차제품)은 시장돈가의 변동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양돈이 자가제조의 햄, 베이콘등의 원료공급부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1차산품인 돈육을 출하함으로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제품화된 정육이나 육제품의 소매대금(도매는 불가)또는 요리등의 판매대금으로 양돈의 이익을 얻는 경영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이라는 다부문 결합 양돈이 아니고 더욱 유기적인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형태의 상업양돈인 다각 경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양돈농가가 이와같은 상업적인 경영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양돈가는 양돈조합, 사료기업이나 종축기업 및 식육기업등 상업자본의 인터그레이션 산하의 조직에 들어가 시장돈가의 변동과는 관계가 없는 고정적인 계약돈가(출하가격)로 안정적인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게 될 것이다.

이제 일본에서는 1차산업적 양돈업의 시대는 지나갔다.